

자기에적 성격성향자의 자존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차 타 순

(부경대학교)

I. 서론

1. 자기에 개념에 대한 정의

자기에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론가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서 많은 혼돈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에에는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 등에서 특정한 현상적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것과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기제 혹은 과정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한수정, 1999). 먼저 자기에적 현상의 특징으로 자기에를 정의하려 함에 있어서 Freud(1953), Fromm(1964), Kernberg(1975), Kohut(1971), Akhtar와 Thomson(1982), Wink(1991a, 1991b), Nunberg(1979), DSM-4(1994)의 자기에적 성격 장애 현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자신에 대한 과대화,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과시와 거만함, 특권의식과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자기중심적 지각,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 내면적 공허감과 무가치함, 취약성, 지나친 과민성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에를 정의하는 두 번째 접근은 이러한 자기에적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 혹은 과정으로 설명한다. 먼저 대상관계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자기에적 현상은 분리상태의 지각에 의해 촉발된 분리불안의 신호에 대해 자아가 방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차적 자기에적 투자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즉, 분리의 지각은 분리불안과 대상상실 경험을 자극하게 되고, 이 불안은 모성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엄마가 자기의 한 부분으로 자기안에 존재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Kernberg(1975)에 의하면 자기에적 성격은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실제 자기상들이 병리적으로 융합된 것이며, 그 결과 자기의 왜곡뿐만 아니라 초자아의 구조적 왜곡이 일어나 훼손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상들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부대상들에게로 투사된다고 하였다(김정옥, 1997). 또, Kohut(1971, 1977)은 자기에적 장애의 핵심병리는 자기옹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인 구조의 부재 혹은 결핍이며, 자기에적 패턴은 자기표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에적 활동들은 약하고 미숙한 자기융집성과 자존감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표상의 파편화 및 구조적 붕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자기에에 대한 이론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자기에란 분리불안, 자기구조의 결핍, 자기구조의 병리적 융합 등의 원인으로 인해 취약해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 자기에란 권위, 착취/특권의식, 우월성, 허영심,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과장성, 자기중심성 등이 DSM-4(1994)의 진단기준으로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에 비교적 현저하게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존감

우리가 전 인생을 살아갈때 끊임없이 부닥쳐 오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자존감에 대한 위협과 상처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고 가치롭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에 진정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보존하려는 것은 필사적인 욕구이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획득한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하며,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 다가오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의심하게 되어 취약감, 패배감, 굴욕감 등을 가지게 된다. Rochlin(1973)은 가능한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자존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기에에 대한 공격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보존할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존감은 자기에의 핵심적인 속성으로써 자기에와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졌으며, 자기에가 자존감과 정적 관련성을 보여 자기에적 성격성향자들이 외현적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정, 1999; Emmons, 1984; Watson, Taylor, & Morris, 1987; Raskin & Terry, 1988; Raskin, Novacek, & Hogan, 1991a, 1991b; Jackson, Ervin, & Hodge, 1992; Morf & Rhodewalt, 1993; Kernis & Sun, 1994; Rhodewalt & Morf, 1995; Ladd, Welsh, Vitulli, Labbe, & Law, 1997; Rhodewalt & Morf, 1998; 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Rhodewalt & Eddings,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에적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긴 하지만 이는 주로 방어적인 자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Raskin, Novacek과 Hogan(1991a)은 정교하게 구성된 자존감 질문지를 이용하여 웅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구성되어진 방어적 자기고양이 자존감을 예언하고, 자기에가 웅대한 자기고양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혀 자기에가 자존감을 조절하려는 방어적 시도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1991b)에서는 적대감, 지배성, 웅대성, 자기에가 상호관계적이고 구성개념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구성개념의 체계가 자존감을 예측할 수 있음을 검증하여 자기에가 자존감 조절의 방어적 형태임을 밝혔다.

따라서, 자기애는 자기 과대적인 귀인 스타일, 또는 웅대한 자기고양과 관련이 있다 (Raskin, Novacek, & Hogan, 1991a; Rhodewalt & Morf, 1995; Ladd, Welsh, Vitulli, Labbe, & Law, 1997; Rhodewalt & Morf, 1998; 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Rhodewalt & Eddings, 2002).

자기애자들은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에 귀인을 시키고 귀인이 안정적이었으나,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귀인을 시키거나 귀인이 불안정하였다(Ladd, Welsh, Vitulli, Labbe, & Law, 1997). 이러한 측면은 Rhodewalt와 Morf(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피이드백에 대한 자기애적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은 자기애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을 시켰고, 실패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극단적인 분노반응과 더 높은 자아존중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Campbell, Reeder, Sedikides와 Elliot(2000)는 자기애와 자기고양 전략을 조사하였다. 참가자들은 상호의존적 성취과제를 수행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성취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성공 또는 실패 피이드백을 받았다. 실험결과, 자기애자들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자기를 고양시켰다. 그러나 자기애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고양에 대하여 좀 더 융통성을 보였다. 즉, 그들은 자신을 파트너와 좋게 비교했을 때는 자기를 고양시키지 않았고, 과제의 중요성을 예측했을 때는 자기를 고양시켰다. 그리고, 자기애자들은 자기애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시(showing-off)와 같은 자기고양 전략(Buss & Chiodo, 1991)과, '전리품' 인 로맨틱 파트너 추구(Campbell, 1999) 등과 같이 더 확장된 자기고양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자기애자들이 자아를 고양시키거나 자아위협 피이드백에 대한 방어으로써 기억왜곡이 일어남을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NPI)로 선택되어진 67명의 남자들에게 조사하였다(Rhodewalt & Eddings, 2002) 그 결과, NPI가 높은 남자들은 여자 파트너가 자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반응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로맨틱한 이야기를 회상하였고, 여자 파트너가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한 반응에서는 변변찮은 이야기를 회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인 남자들이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과장된 기억왜곡을 보이는 것은 거절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사하였다.

아동이 자기감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자들이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자신을 타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안전감을 가져야 한다. 자기애적 현상은 가치를 두는 사물이나 대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아동이 그의 중요한 대상들의 특징을 내사하는 것도 그의 대상들에게 방어적으로 매달리는 한 방식이며, 사랑 받는 대상의 상실은 자존감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자기애의 박탈을 가져온다.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대상들과의 사랑의 상실, 혹은 거세불안과 관련된 상징적 상실의 공포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대상 상실의 공포가 모든 공포들 중에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Kohut, 1971). 대상들에게 자기애적 리비도를 투자함으로써 그 대상들은 상실에 민감한 대상들이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는 그 대상의 존재, 찬성, 혹은 그 대상으로부

터 파생된 다른 자기애적 만족들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그는 자기 응집감과 자기 존중감이 파괴되는 자기애적 불균형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자존감의 감소는 자기애적 상처의 주요한 매개 변수이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적대감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는 냉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호혜성이 부족하며,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착취성, 노출적 과시행동, 그리고 이상적 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애적 소망을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간 갈등을 일으키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짧고 피상적인 극단적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대인관계를 맺어 적대감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또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적대감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McCann & Biaggio, 1989; Robbins & Dupont, 1992; Rhodewalt & Morf, 1995; Hart & Joubert, 1996; Rhodewalt & Morf, 1998).

McCann과 Biaggio(1989)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언어적인 분노 표현이 증가하고, 남자의 경우 자기애가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함을 밝혔다. 또, Schulte, Hall, 그리고 Crosby(1994)는 자기애와 공격성간의 관련성을 정의해 왔는데, Hart와 Joubert(1996)는 이러한 이전 연구를 확장하여 적대감의 어떤 범주가 자기애의 점수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적대감, 폭력, 부정, 의심, 언어적 적대감 등의 점수가 더 높았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불쾌한 평가정보가 비록 사실적이고 정확할지라도 그들의 자아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열망이 강하다. 그러므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자아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공격성을 초래할 수 있다(Penney & Spector, 2002). Morf와 Rhodewalt(1993)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과제를 파트너와의 경쟁상황 하에서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주어 자기(self)에 관한 위협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자기에 관한 위협의 정도가 더 컸을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경쟁상대인 파트너의 성격을 더 나쁘게 평정하였다.

Kernis와 Sun(1994)도 과제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조작하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그 피드백과 피드백을 전달한 사람에 대해 어떤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을 때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그 피드백을 전달한 사람을 더 나쁘게 평정하였다. 하지만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은 자기보고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분노를 차가운 무관심으로 포장하여 좀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가 하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에 대해 극단적인 정서 반응, 특히 분노 반응을 보인다는 이론적 제안을 검증한 결과(Rhodewalt & Morf, 1998), 실패 피드백을 받았

을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분노와 불안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연구 결과들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자기(self)에 대한 위협 때문에 적대감과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자기애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연구결과로 볼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험적으로 이러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적대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61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중 설문지의 방어척도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응답하여 응답 결과가 방어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 수와 응답 프로파일이 극단적으로 치우쳐 신뢰성이 없을 수 있는 사례 수 72명은 제외시켜 총 538명을 통계처리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538 명 중 남학생이 409명(76.02%), 여학생이 129명(23.98%)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자기애적 성격 성향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는 Raskin과 Terry(1988)의 자기애 측정 도구, Emmons(1981)의 자기애 측정 도구, 한수정(1999)이 Raskin과 Hall(1979)가 개발한 자기애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광희경(1991)이 자아에 대한 Kohut의 자기심리학 개념 중 허위자율성 개념과 동료집단의존성 개념을 기초로 한 척도 등과 같은 외국 척도들과 황순택(1995)이 DSM-4(1994)의 진단 준거에 의거하여 만든 자기애적 성격 장애 공유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다시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가 다시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외국 번안 척도들이 예, 아니오로 답하는 강제 선택형 자기애적 성격 척도였기 때문에 자기애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구성에 있어서 번안 척도들은 기존 연구자의 요인구성과 번안하여 회전시켰을 때의 요인구성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애 이론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하위요인과 문항을 분석하여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각 요인을 권위, 착취/특권의식, 우월성, 허영심, 자기중심성,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과장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사용된 척도범위는 7점 척도였다. <표 1>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하위요인별 요인 척도간 상관계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문항 수 및 신뢰도를 나타낸 것인데, 예비문항 총 65문항에서 각 하위요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요인척도간 상관계수와 내적 일치도를 기준으로 하여 타당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시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척도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9~.89의 분포를 가지며,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표 1> 자기애적 성격 성향 척도의 구성

요 인	R	F	고유치	%분산	문항수	신뢰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47	.89
권위	0.75	0.83	.333	4.75	9	.79
착취/특권의식	0.76	0.84	4.286	61.22	7	.77
우월성	0.73	0.83	.878	12.54	7	.82
허영심	0.64	0.73	.579	8.27	5	.78
자기 중심성	0.58	0.67	.211	3.01	7	.69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	0.75	0.83	.283	4.04	7	.81
과장성	0.64	0.74	.432	6.17	5	.70

R : 요인 척도간 상관계수 F : 요인 부하량

<표 2>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Varimax 축회전 후의 PC요인 행렬

요인 \ 성분	1	2	3	4	5	6	7
과장성	.91	.11	.18	.16	.18	.13	.24
자기중심성	.10	.93	.12	.18	.19	.20	.07
허영심	.19	.13	.91	.17	.14	.21	.18
권위	.20	.24	.20	.83	.26	.27	.16
착취/특권의식	.24	.27	.18	.27	.82	.21	.20
칭찬과주목	.16	.28	.27	.28	.21	.82	.16
우월성	.45	.12	.28	.20	.25	.19	.75

<표 2>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하위요인들을 직교적으로 축회전(Varimax rotation)을

한 후의 PC요인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위요인들을 직교적으로 축회전을 하는 이유는 각 요인들의 독립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 <표 2>는 각 하위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변별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자존감 척도

자존감에 대한 척도는 Rosenberg, M.(1965)이 개발한 검사 문항을 이영자(1996)가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이 5개로 총 10문항이었는데, 이 중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에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존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에 대한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다) 적대감 척도

적대감에 대한 척도는 안창규(1990)가 잠재적 청소년 비행측정을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사용했으며, 총 10문항에 4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적대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감이 강함을 나타낸다. 이 척도에 대한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5였다.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가 만든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아니면 해당 학교 상담교사의 협조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해당학교 상담교사에 의해 설문을 실시했을 경우 학생들이 신뢰성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먼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에서 자기애 이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주성분 분석에 의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것을 좀더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점수 분포를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자존감과 적대감에 대한 점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존감과 적대감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기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 중 자존감과 적대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과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및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며, <표 4>은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과 적대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와 하위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척도 및 하위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437	165.32	43.69
권위	507	32.45	10.09
착취/특권의식	528	22.85	8.00
우월성	527	22.45	8.49
허영심	520	17.22	6.01
자기중심성	509	25.21	7.54
칭찬과주목에 대한 요구	521	28.43	8.84
과장성	521	16.71	5.90

<표 4> 자존감과 적대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514	23.77	4.21
적대감	514	24.69	4.96

우선,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자존감, 적대감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적대감이 높으면서도 자존감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표 5>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과 적대감간의 상관분석결과

심리적 특성	척도	자기애적 성격성향
	자존감	.26**
	적대감	.36**

** $p < .01$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존감과 적대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6>, 자존감과 적대감이 자기애적 성격성향 변동의 24.8%($R^2=.24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과 적대감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존감과 적대감이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β 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적대감이 자존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존감과 적대감 중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은 적대감임을 알 수 있다.

<표 6>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대한 자존감과 적대감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adjusted R^2	$\Delta ad.R^2$	β	t
자기애적 성격성향	적대감	.129	.129	.436	10.031 *
	자존감	.248	.019	.355	8.167 *

* $p < .01$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NPS) 점수 분포의 25%와 75%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중·하 집단으로 나누어, 자존감과 적대감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중·하 집단간의 자존감과 적대감에 대한 평균점수와 변량분석 결과, 그리고 각 집단간 차이에 대한 Duncan 검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Duncan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각 조건에서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내고, 등호표시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7> 자기애적 성격성향(NPS)의 상·중·하 집단별 자존감과 적대감 점수의 평균과 변량분석, Duncan 검증결과

척도명 \ 평균점수	NPS 상집단	NPS 중집단	NPS 하집단	F	Duncan 검증결과
자존감	24.77(4.58)	24.33(4.32)	22.39(3.82)	12.45***	상=중>하
적대감	26.90(4.96)	24.12(4.26)	22.89(5.20)	23.93**	상>중>하

** $p < .01$ *** $p < .001$

변량분석결과, 모든 척도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중·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검증으로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자존감의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과 중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상, 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대감의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이 중 집단보다 높았고, 중 집단은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더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구체적인 성격특성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하위요인과 자존감과 적대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8>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과 자존감과 적대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관분석결과, 자존감은 자기중심성 이외의 모든 하위요인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적대감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요인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간의 전체적인 상관계수의 경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 두 요인에서 자존감과는 상관이 낮거나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대감과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 계수가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하위요인 중 착취/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이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표 8>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간의 상관분석결과

척도	요인	권위	착취/ 특권	우월성	허영심	자기 중심	창찬/ 주목	과장성
자존감		.13**	.16**	.38**	.20**	-.04	.22**	.34**
적대감		.36**	.41**	.18**	.17**	.49**	.28**	.15**

** $p < .01$

이러한 측면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자존감과 적대감 각각에 대한 자기에 하위 요인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자존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adjusted R ²	Δad.R ²	β	t
자존감	우월성	.172	.172	.464	8.854*
	자기중심성	.224	.052	-.304	-5.779*
	칭찬과주목에 대한 욕구	.231	.007	.123	2.085*

* $p < .05$

먼저, 자존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우월성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가 유의미하게($p < .05$)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이 요인들이 자존감 변동의 23.1%($R^2=.23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월성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β 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중심성과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중심성은 부적인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은 우월성이며, 자존감에 대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은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적대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adjusted R ²	Δad.R ²	β	t
적대감	자기중심성	.220	.220	.367	7.289*
	착취/특권의식	.245	.025	.294	4.823*
	우월성	.258	.013	-.156	-2.855*

* $p < .05$

다음으로, <표 10>은 적대감에 대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자기중심성, 착취/특권의식, 그리고 우월성이 적대감에 유의미하게($p < .05$)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이 요인들이 적대감 변동의 25.8%($R^2=.25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중심성, 착취/특권의식, 그리고 우월성이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β 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착취/특권의식, 우월성 순으로 나타났으나, 우월

성은 부적인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은 자기중심성이며, 적대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은 우월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심리적 특성 중 자존감과 적대감이 어떠한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

먼저,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자존감, 적대감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자존감과 적대감 모두 유의하게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적대감이 높으면서도 자존감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존감과 적대감 중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은 적대감이었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상·중·하 집단별 자존감과 적대감 점수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의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과 중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상 집단의 평균점수가 중 집단보다 높았으며, 상, 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대감의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이 중 집단보다 높았고, 중 집단은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외현적으로 자존감을 높게 나타낼 수 있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의 적대감에 대한 Hart와 Joubert(1996)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자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좌절에 대해 더 주관적으로 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것은 그들의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적대감을 내면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은 적대감과 반대되는 심리 특성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실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내면적으로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적대감이 높으면서도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이 자존감이 사실은 방어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자존감의 역동성을 고

려해 볼 때, 이 상 집단은 이미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자존감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Rhodewalt와 Morf(1995)는 자기애의 높은 점수가 자기과대적인 스타일과 관련이 있고, 자기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대감과 반항심이 높음을 증명한 바 있었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 중 자기애에 대한 확신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적대감을 보이는 것으로써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의 자기확신이 안정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측면은 자기애적 현상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방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정신분석적 이론과 일치하고 있으며(Freud, 1953; Kernberg, 1975; Kohut, 1971, 1977; Akhtar & Thomson, 1982), 많은 경험적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한수정, 1999; Hartouni, 1992; Morf & Rhodewalt, 1993; Kernis & Sun, 1994; Rhodewalt & Morf, 1995; Ladd, Welsh, Vitulli, Labb', & Law, 1997; Farewell & Wohlwend-Lloyd, 1998; Rhodewalt & Morf, 1998; 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Rhodewalt & Eddings, 2002).

2.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아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구체적인 성격특성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존감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 이외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적대감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면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자존감과 적대감 각각에 대한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우월성, 자기중심성, 그리고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가 유의하게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는데, 이 중 자존감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우월성이었으며, 자존감에 대하여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자기중심성이었다.

따라서, 이 우월성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로 하여금 웅대한 자기과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가장 중심적인 성격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함을 더 선호한 것으로 정의한 Bushman과 Baumeister(1998)의 견해와 같으며, 또 과대적 자기 이미지에 의한 높은 자존감을 개념화한 것이 바로 자기애라고 설명한 Penney와 Spector(2002)의 관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자기애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객관적인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자기평가는 우월성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방해되어진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것을 논박하는 정보를 만나게 될 때 자기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위협화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자기중심성, 착취/특권의식, 그리고 우월성이 유의하게 적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적대감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자기중심성 이었으며,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은 우월성이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 중 자기중심성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격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은 우월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중심성이란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이러한 자기중심적 성격특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적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Baumeister, Smart와 Boden(1996)의 위협화된 자기중심성과 공격성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 이론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공격행동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위협(self의 긍정적인 면을 폄하 하는 사건)의 결합에 의해 일으켜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모든 사람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아위협에 취약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격반응은 미래에 그들에게 도전하고 부정적인 피이드백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자아위협의 근원을 처벌하고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행동이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지각된 우월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성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높긴 하지만 자아위협에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과민해지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에 도전하는 정보나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과 자아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 중 자존감과 적대감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라 함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에 의해 자기애적 성격특성이 비교적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을 좀더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하여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특성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자기애란 자기자신에 대한 과대화,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 과시와 거만함, 특권의식과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자기중심적 지각,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 내면적 공허감과 무가치함, 취약성, 지나친 과민성 등의 현상이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Kohut(1971, 1977)은 자기애적 장애의 핵심병리를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인 구조의 부재 혹은 결핍이라 하였으며, 자기애적 패턴은 자기표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기애적 활동들은 약하고 미숙한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표상의 파편화 및 구조적 붕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자기애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외현적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주로 방어적인 자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냉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호혜성이 부족하며,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착취성, 노출적 과시행동, 그리고 이상적 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애적 소망을 충족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간 갈등을 일으키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짧고 피상적인 극단적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대인관계를 맺어 적대감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자존감, 적대감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자존감과 적대감 모두 유의하게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었다. 그리고 자존감과 적대감 중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은 적대감이었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상·중·하 집단별 자존감과 적대감 점수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의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과 중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상 집단 평균이 중 집단보다 높았으며, 상, 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적대감의 점수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상 집단이 중 집단보다 높았고, 중 집단은 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구체적인 성격특성과 자존감, 적대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존감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 이외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적대감은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면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자존감과 적대감 각각에 대한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우월성, 자기중심성, 그리고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가 유의하게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는데, 이 중 자존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우월성이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들 중 자기중심성, 착취/특권의식, 그리고 우월성이 유의하게 적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이 중 적대감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은 자기중심성 이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우월성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외현적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방어적인 것으로써 약하고 미숙한 자기옹집성과 자기 표상의 파편화 및 구조적 붕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은 내면적으로 적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과민해지고, 긍정적인 자기평가에 도전하는 정보나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며, 이러한 도전과 자아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VI. 참고 문헌

- 곽희경, 대학생 나르시시즘 성향과 자아정체감 수준과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1991.
- 김정옥,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2, 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7, pp.43~59.
- 안창규,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조기진단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곡논총, 21, 1990, pp.635~717.
- 안창규, 학생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의 측정연구, 성곡논총, 23, 1992, pp.119~170.
- 이영자,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6.
- 한수정,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황순택,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 Akhtar, S., & Thomason, A.,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 of Psychiatry, 139, 1, 1982, pp.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1994.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1996, pp.5~33.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998, pp.219~229.
- Buss, D. M., & Chiodo, L. M., Narcissistic acts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59, 1991, pp.179~215.
- Campbell, W., Reader, G., Sedikides, C., & Elliot, A.,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3, 2000, pp.329~347.
- Campbell, W. K.,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999, pp.1254~1270.
- Emmons, R. A.,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1981, pp.247~250.
- Emmons, R. A.,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1984, pp.291~300.
- Farewell, L., & Wohlwend-Lloyd, R., Narcissistic processes :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 1, 1998, pp.64~83.
- Freud, S.,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4), 1953.
- Fromm, E., *The heart of man ; Its genius for good and evil*, New York: harper and row, 1964.
- Hart, P. L., & Joubert, C. E.,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996, pp.161~162.
- Hartouni, Z. S.,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ty organization on causal attribu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992, pp.588~599.
- Jackson, L. A., Ervin, K. S., & Hodge, C. N., Narcissism and body im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1992, pp.357~370.
- Kernberg, O. F.,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1975.
- Kernis, M. H., & Sun, C. R.,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 of Research i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1994, pp.204~210.
- Kohut, H.,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1.
- Kohut, H.,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 Ladd, E. R., Welsh. M. C., Vitulli, W. F., Labbe, E. E., & Law, J. G., Narcissism and causal attribution, *Psychological Reports*, 80, 1997, pp.171~178.
- McCann, J. T., & Biaggio, M. K.,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1989, pp.55~58.
- Morf, C. C., & Rhodewalt, F.,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1993, pp.668~676.
- Nunberg, H. G.,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agnosis*, Weekly Psychiatry Update Series. 3: Lesson 17, 1979.
- Penney, L. M. & Spector, P. E., Narcissism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 Do Bigger Egos Mean Bigger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0, 1(2), 2002, pp.126~134.
- Raskin, R., & Terry, H.,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 1988, pp.890~90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1991a, pp.20~38.
- Raskin, R., Novacek, J., Hogan, R., Narcissism,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 1991b, pp.911~918.
- Rhodewalt, F. & Eddings, S., Narcissus Reflects : Memory Distortion in Response to Ego~Relevant Feedback among High - and Low - Narcissistic M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2, 2002, pp.97~116.
- Rhodewalt, F., & Morf, C. C.,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995, pp.1~23.
- Rhodewalt, F., & Morf, C. C.,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3, 1998, pp.672~685.
- Robbins, S. B. & Dupont, P.,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 1992, pp.462~467.
- Rochlin, G., *Man's Aggression: The Defense of the Self*, Boston: Gambit Press, 1973.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 Press, 1965.
- Schulte, H. M., Hall, M. J., & Crosby, R., Violence in patient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pathology : observations of a clinical ser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48, 1994, pp.610~623.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7(8), 1987, pp.335~350.
- Wink, P., Self- 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 4, 1991a, pp.769~791.
- Wink, P.,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 1991b, pp.590~597.

Narcissists' Self-esteem and Hostility

Ta-Soon CH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arcissism and the self-esteem, the host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empirical research has executed.

First, the narcissism, the self-esteem and the hostility was analyzed, and the subfactors of narcissism, the self-esteem and the hostility was. The major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narcissism had significantly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 self-esteem and the hostility, and both of the self-esteem and the hostility influenced of significantly the narcissism, especially the hostility influenced of the narcissism

even more importantly.

(2) The more narcissism showed the higher self-esteem overtly and the more hostility.

(3) The all subfactors to except the self-centeredness of the narcissism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 self-esteem, and the all subfactors of narcissism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the hostility.

(4) The most important narcissism personality traits which influenced of the self-esteem was the superiority, and the hostility the self-centeredness.

Narcissists are motivated by the preference for being superior to others. That is, narcissists have an extreme emotional investment in establishing their superiority, even if they are unsure that their superiority is merited.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narcissists to have high self-esteem. But this is to defence the fragility of the vulnerable self structure.

And, narcissists feel very much a sense of hostility in psychologically. Because they are hyper-sensitive to negative information, they will be more likely to encounter information or situations that challenge their positive self-appraisal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or ego threats, they will likely experience negative emotion, such as hostility.